

12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과장

“연말연시 소비증가로

점진적 상승세 예상”

□ '90년대는 채란업의 일대 변혁기로 보여진다. 수입개방과 더불어 민주화에 편승, 법을 초월하는 상황에서 채란업은 확고한 방향 설정없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다행히 생산량감소로 호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채란업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또한 산물의 가격결정과 생산자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산물의 주인인 생산자가 주도하는 가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생업사수 차원을 떠나 채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전력투구 해야할 것이다.

□ 10월 산란사료 생산실적은 초생추사료가 5,178톤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42%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4.5% 감소했다. 10월까지 누계는 전년동기간에 비해 14.9%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117,713톤으로 전년동기, 전월에 비해 1.3%, 5.7% 각각 감소했다. 이같은 사료생산 추이를 볼때 병아리 생산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특히 계절별 입추패턴에서 특징을 보여주지 않아 계란 수요기에 공급량의 부족이 예상되고 박수기는 오히려 많이 남아도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종계입식은 10월까지 누계가 430,593수로 전년에 비해 1% 증가에 그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도 병아리 생산도 크게 우려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병아리값에 따른 병아리생산수수가 유동적일 것 같다.

□ 연말 수요기를 앞두고 매년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12월 계란값의 특징이다. 금년도도 소비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생산측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면이 있어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오름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초 이후 계속되는 병아리입식의 증가로 신계에서의 생산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란값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계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노계도태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계란값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를 맞아 호흡기 계통의 질병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종 계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9.2	41.9	32.6	20.1	38.3	92.8	27.8	42.8	26.3	80.2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420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117	2,229	2,229	2,405	2,127	2,026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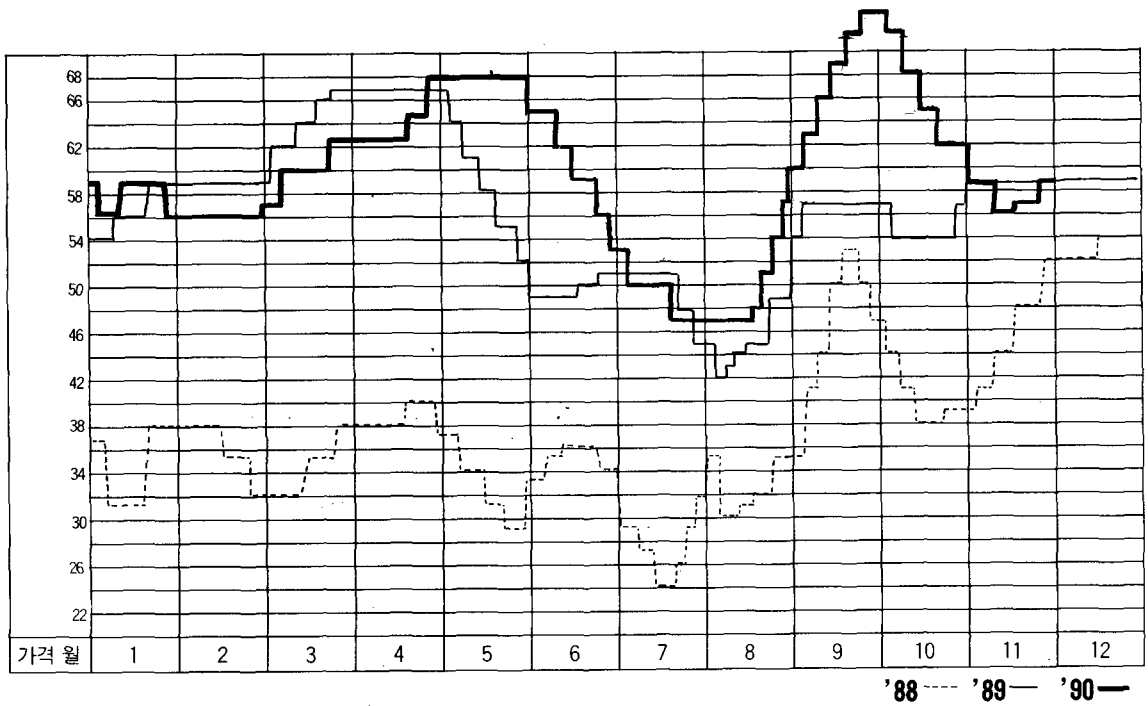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